

국어 오직 시험의 감을 위한, 수능 Item!

# 시험의 법칙

최영수 지음

Rule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의 감(感)을 찾는 7가지 법칙

# Rule track

I. 발문-선지의 유형	009
II. 선지 오류의 유형	039
III. 보기-선지의 유형	063
IV. 선(先) 꼬리 유형	095
V. 일탈 선지의 유형	137
VI. 대립 선지의 유형	161
VII. 공통 선지의 유형	189
정답 및 해설	217

# 시험의 법칙



## Rule 5

### [일탈 선지]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다섯 선지 중 하나가 나머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 V. 일탈-선지의 법칙

- 1) 한 가지 기준으로 선지를 분석한다.
  - 2) 4개와 다른 하나의 일탈 선지를 찾는다.
- ▶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일탈 선지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 01-1 다음 중 나머지와는 성격이 다른 낱말을 고르시오.

안내 문제

- ① 본색                      ② 욕망                      ③ 타락  
④ 위선                      ⑤ 성찰

##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발문에 제시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낱말'은 문제의 선지 중에서 일탈(정해진 영역에서 벗어남) 선지인 것을 말한다. 어떤 방법으로 일탈 선지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선지를 분석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조합된 선지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동일한 선지에서도 여러 기준으로 일탈 선지를 찾을 수 있다.

- ① 소나무, ② 구름, ③ 연필, ④ 과자

기준 1: 생명성 유무 ⇨ 오직 ① 소나무만이 생명성이 있어서 일탈!

기준 2: 취식 가능/불가능 ⇨ 오직 ④ 과자만이 취식이 가능하여 일탈!

기준 3: 이동성 가능/불가능 ⇨ 오직 ② 구름만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 일탈!

## 분류 기준 세우기!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위 문제의 선지에 제시된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살펴보자.

- ① 본색: 본디의 특색이나 정체.  
② 욕망: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③ 타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④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⑤ 성찰: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

각 낱말의 의미를 살펴보니 선지 ⑤ 성찰만이 확실히 좋은 뜻이고 ③ 타락 ④ 위선은 확실히 나쁜 뜻이다. 하지만 ① 본색과 ② 욕망은 문맥 없이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뜻이다. 그래서 위 문제는 완벽한 기준으로 일탈 선지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만 중립적인 ① 본색과 ② 욕망이 문학 작품 등의 여러 글에서 좋지 않은 문맥 중에 많이 사용되기에 ①~④는 ⑤와는 다르게 같은 부류로 묶어 볼 수 있다.

위 문제의 선지는 다음 기출된 수능 문제의 일부분이다.

## 0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12 수능 |

안내 문제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선지의 밑줄친 낱말을 긍정적 / 부정적 이미지로 기준을 세워 분류하면 선지 ⑤만이 긍정적이고 나머지 선지는 부정적이다.

① <u>본색</u> 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부정
② <u>욕망</u> 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③ <u>타락</u> 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④ <u>위선</u> 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⑤ <u>성찰</u> 하는 공간이다.	⇨ 긍정 (정답)

다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지 ⑤의 성찰은 확실히 긍정적 이미지이다. 그리고 ③의 타락, ④의 위선은 확실히 부정적 이미지이다. 또한 ①의 본색 = ②의 욕망, 이 둘은 선지의 흐름 상 ⑤의 성찰보다는 ③의 타락, ④의 위선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기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일탈 선지】의 법칙이 적용되어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일탈 선지인 ⑤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선지 ⑤가 답임을 확인해 보자.

## 지문 &amp; 해설

어느 날 ㉠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 밤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렵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 려.”

- 박지원, 「호질」

▶ 박지원의 「호질」은 양반의 도덕적인 허위의식을 비판 풍자한 소설로 선지 ⑤의 ㉤들판은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범의 꾸지람을 듣고 잠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하지만, 아침에 농부가 나와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다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문제도 일탈 선지를 골라내는 기준을 생각해 보자.

## 02

안내 문제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1 수능 |

- ① 모내기 철에 품앗이를 하였다.
- ②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 ③ 직장 동료끼리 교대로 점심을 샀다.
- ④ 할인 매장에서 싼값으로 물건을 샀다.
- ⑤ 알뜰 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맞바꾸었다.

## 일탈 발견의 시작은 선지 분석!

선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① 모내기 철에 <b>품앗이</b> 를 하였다.	⇒ 좋은 현상 (긍정적)	⇒ 합당한 이익
② 사재기를 통해 <b>폭리</b> 를 취했다.	⇒ 나쁜 현상 (부정적)	⇒ 부당한 이득 (정답)
③ 직장 동료끼리 <b>교대로</b> 점심을 샀다	⇒ 좋은 현상 (긍정적)	⇒ 합당한 이익
④ <b>할인 매장</b> 에서 <b>싼값</b> 으로 물건을 샀다		
⑤ 알뜰 시장에서 <b>중고 물건</b> 을 <b>맞바꾸었다</b>		

나머지와는 다르게 선지 ②만이 나쁜 현상(부정적)으로 일탈이다. 그래서 **【일탈 선지】**의 법칙에 의해 지문 및 발문을 보기 전에 일탈 선지인 ②가 답일 확률은 약 80%이다.

### + 시험의 원리 XVII

#### 훌륭한 분석 기준?

#### 좋은 현상 VS 나쁜 현상

문장을 분석할 때 위의 기준을 적용해도 될까? 당연히 된다.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최소 둘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리고 좋은 현상을 긍정으로 나쁜 현상을 부정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 출제자는 **【일탈 선지】**의 법칙을 알까? 모를까?

당연히 모른다. 알고 있다면 일탈 선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약 80%가 될 만큼 높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험의 출제 지침은 존재한다.

### ☞ 객관식 출제 지침 중

“문제마다 각 선지의 길이를 균형 있게 맞춰  
수험생에게 특정 선지가 눈에 띄지 않게 한다.”

그래서 보통 국어 시험의 선지는 모두 비슷한 길이어거나 선지 ①에서 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선지의 길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



이기에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일탈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에게 너무나 유용한 문제풀이 도구인 셈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답을 확인해 보자.

### 지문 & 해설

이처럼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값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 지문의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는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인 자발성과 절차적 합리주의인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선지 ㉡는 자발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반 시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03 주인공 '나'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1996 수능 |

안내 문제

- ①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나 소심한 편이다.
- ② 환상적인 꿈을 좇고 미래를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 ③ 개인적 신념이 투철하며 냉정하게 현실에 대처해 나간다.
- ④ 현실 파악은 다소 느리지만, 저돌적으로 자기 목표를 실현한다.
- ⑤ 매사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 2014 수능, Rule7의 쾌거!

## 2014년 수능 A형

- 1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3쪽)
- 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7번: 선지 오류의 법칙 (045쪽)
- 8번: 보기-선지의 법칙
- 18번: 대립 선지의 법칙 (180쪽)
- 1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23번: 보기-선지의 법칙 (093쪽)
- 24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5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7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9번: 선(先) 꼬리의 법칙 (131쪽)
- 31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33번: 일탈 선지의 법칙 (149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2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4쪽)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 2014년 수능 B형

- 3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3쪽)
- 17번: 선(先) 꼬리의 법칙
- 18번: 선(先) 꼬리의 법칙
- 2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23번: 선(先) 꼬리의 법칙 (125쪽)
- 25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28번: 선(先) 꼬리의 법칙 (116쪽)
- 29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0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2번: 대립 선지의 법칙 (177쪽)
- 33번: 대립 선지의 법칙
- 3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7쪽)
- 36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8쪽)
- 38번: 공통 선지의 법칙 (209쪽)
- 39번: 일탈 선지의 법칙
- 41번: 선(先) 꼬리의 법칙
- 42번: 대립 선지의 법칙
- 45번: 공통 선지의 법칙 (212쪽)



시험의 법칙이 한 시험에 5문제 정도만 활용되어도 굉장히 유용한데 2014년 수능에는 약 20문제에 활용되었다. 이 책이 정식 출판되기 전에 미리 만나본 수험생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량 때문에 책에 넣지 못한 문제의 분석은 rule7 카페 <http://cafe.naver.com/rule7> 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